

공광삼(孔廣森)의 『공양춘추경전통의(公羊春秋經傳通義)』에 서 ‘삼과구지(三科九旨)’에 대한 새로운 해석

장상량

(성균관대학교 · 유학중앙연구원 · 박사수료)*

- I. 서론
- II. 천도(天道)와 「시(時)·월(月)·일(日)」
- III. 왕법(王法)과 「기(譏)·괘(貶)·정(絕)」
- IV. 인정(人情)과 「존(尊)·친(親)·현(賢)」
- V. 결론

* 877277440@qq.com

I. 서론

공광삼(孔廣森, 1752~1786)은 자가 중중(眾仲), 회약(摠約)이고, 호는 순헌(顙軒)이며, 산둥(山東) 곡부(曲阜) 출신으로 공자(孔子)의 70대 후손이자 청대의 저명한 학자이다. 공광삼은 명문가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연성공(衍聖公) 공전탁(孔傳鐸, 1674~1735)이고, 아버지 공계분(孔繼汾, 1725~1786)은 호부주사(戶部主事)를 지냈다. 건륭(乾隆)제 33년(1768년),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공광삼은 향시(鄉試)에 합격하여 거인(舉人)이 되었고, 그 당시 주임 시험관이었던 저명한 학자 요내(姚鼐, 1731~1815)를 스승으로 모셨다. 3년 후, 그의 족속(族叔)인 공계함(孔繼涵, 1739~1784)과 함께 북경으로 올라가 진사에 급제하여 부감독관 장존여(莊存與, 1719~1788)의 가르침을 받았고, 한림원서길사(翰林院庶吉士)로 임명되어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공광삼은 비록 명문가 출신이었으나 성품이 담박하여 권세와 교류하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했다. 그러나 부모가 잇달아 세상을 떠난 데다 가문 내의 갈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고, 결국 건륭제 51년(1786년) 비통함 속에 생을 마감했다. 향년 35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겼다.

공광삼은 건가(乾嘉) 학술이 융성하던 시기에 태어나 경학, 예학, 문학, 성운학(聲韻學), 산학(算學)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동하였으며, 특히 『공양(公羊)』, 『삼례(三禮)』, 『대대례(大戴禮)』 등 고전 연구에 뛰어났다. 그는 『공양춘추경전통의』 11권, 『대대예기보주(大戴禮記補注)』 13권, 『예학치언(禮學卮言)』 6권, 『경학치언(經學卮言)』 6권,

『소광정부술내외편(少廣正負術內外篇)』 6권, 『의정당문집(儀鄭堂文集)』 2권 등 다양한 저작을 남겼으며, 문사와 경학 등 여러 방면에 걸쳐 그의 학문적 성과를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양춘추경전통의(公羊春秋經傳通義)』는 공광삼의 경학 연구를 대표하는 중요한 저작으로,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그의 학문적 연구는 여러 학파의 학설을 융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경학 연구와 예학 고증에 중점을 두어 청나라 학자들 사이에서 독특한 주장을 전개했다. 강번(江藩, 1761~1831)은 『한학사승기(漢學師承記)』에서 공광삼을 “대씨(戴氏)의 학문에 정통하여 그 근원을 깊이 탐구할 수 있었으며, 그의 언행은 고대의 풍모를 따랐다.”¹⁾고 평가하면서 그를 고문학과에 속하는 학자로 분류하였으나, 공광삼은 요내(姚鼐, 1731~1815)와 장존여(莊存與)의 영향을 받아 정현(鄭玄, 127~200)식의 통학(通學)을 추구했다. 요내(姚鼐)는 “공자의 후예로서 공자의 학문을 전수하니, 세상이 공광삼에게 기대하는 바가 더욱 깊어졌다.”²⁾고 말했다. 『청유학안(淸儒學案)』에서도 그를 “충명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경학과 사학, 소학에 정통하고 깊이 있는 이해와 정밀한 해석 능력을 지녔다.”³⁾라 평가했다. 공광삼은 짧은 생애 동안에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고, 그의 학문적 깊이와 폭넓음으로 인해 후대에 “청대 경학의 기재”라는 찬사를 받았다. 『청사고(淸史稿)』에서는 공광삼을 “고가전학(孤家專學)”으로 평가하여 청대 경학에 대한 독특한 기여를 드러내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나, 후대 학계에 소중한 학문적 유산을 남겼다.

1) 江藩, 『漢學師承記』: 深于戴氏之學, 故能義探其原, 言則于古也.

2) 姚鼐, 『儀鄭堂記』: 雖說經精善, 猶末也, 以孔子之裔, 傳孔子之學, 世之望於搢約者益遠矣.

3) 徐世昌, 『淸儒學案』: 聰穎特達, 經史小學, 沉覽妙解.

고대 철학과 역사 연구에서 『춘추전공양전』은 『춘추』의 삼전(三傳) 중 하나로서 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중시되어 왔다. 그 학문적 사상은 후대의 역사, 정치, 윤리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한(漢)나라 시기에는 “삼과구지(三科九旨)” 이론이 공양학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춘추』의 사상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했다.⁴⁾ 그러나 한나라의 멸망과 사회 변천에 따라 공양학은 점차 쇠퇴하였고, “삼과구지”에 대한 논의도 감소했다. 청나라에 들어오고, 특히 건륭제 시기에는 학술

4) 양한(兩漢) 시기의 공양학 전통에는 ‘삼과구지(三科九旨)’라는 설이 있었다. 『춘추위(春秋緯)』, 「연공도(演孔圖)」에는 “『춘추』에 삼과구지를 설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언(徐彦)은 『공양주소(公羊注疏)』에서 하휴(何休)의 ‘삼과구지’에 대한 설을 이어받아, 하휴의 잃어버린 『문시례(文諡例)』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삼과구지(三科九旨)란, 새로운 주(周)와 옛 송(宋)을 대비하여 『춘추』를 새로운 왕조에 비유한 것’이니, 이것이 첫 번째 과(科)와 세 가지 지침(旨)이다. 또 ‘보았음에 다른 말이 있고, 들었음에 다른 말이 있으며, 전해 들었음에 다른 말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두 번째 과와 여섯 가지 지침이다. 또 “『춘추』는 魯나라를 안으로 여기고 諸夏를 바깥으로 여겼으며, 諸夏를 안으로 여기고 夷狄을 바깥으로 여겼다.”라고 한 것은 ‘삼과구지’이다(內其國而外諸夏, 內諸夏而外夷狄, 是三科九旨也.).(『공양주소』 권일). 그러나 한대(漢代)에는 또 다른 ‘삼과구지’라는 설이 있었는데, 서언은 또 송씨의 『춘추설(春秋說)』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삼과(三科)란, 첫째는 삼세(三世)를 펼치는 것이며, 둘째는 삼통(三統)을 보존하는 것이며, 셋째는 내외(内外)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것이 삼과이다. 구지(九旨)란, 첫째는 시(時), 둘째는 월(月), 셋째는 일(日), 넷째는 왕(王), 다섯째는 천왕(天王), 여섯째는 천자(天子), 일곱째는 기(讖), 여덟째는 폄(貶), 아홉째는 절(絶)이다. 시와 월일은 상세와 간략의 뜻을 가진 것이며, 왕과 천왕과 천자는 멀고 가깝고 친밀하고 소원함을 기록하는 뜻이며, 기와 폄절은 가벼움과 무거움을 나타내는 뜻이다(三科者, 一日張三世, 二日存三統, 三日昇外內, 是三科也. 九旨者, 一日時, 二日月, 三日日, 四日王, 五日天王, 六日天子, 七日讖, 八日貶, 九日絕. 時與日月, 詳略之旨也; 王與天王天子, 是遠近親疏之旨也; 讖與貶絕, 則輕重之旨也.).”(『공양주소』 권일). 두 설은 비록 다르지만, 대체로 양한 공양학에서는 ‘삼과구지’를 『공양』을 다루는 강령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대가 멸망한 이후로 『공양』이 쇠퇴하면서 학자들 중에 ‘삼과구지’를 논하는 자가 드물었다. 그러다 청대 중엽에 이르러 공양학이 부흥하면서, ‘삼과구지’는 다시금 공양학의 핵심 문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 건륭 연간의 공광삼이 『공양통의(公羊通義)』를 저술하여 가장 먼저 ‘삼과구지’에 대해 논했다. 그의 논술은 이후 공양학이 더욱 전개되는 과정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공양학설사에서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郭曉東, 「孔廣森與“公羊”之“三科九旨”」, 上海: 『復旦政哲哲學評論』 제8집, 2016, 205~206쪽 참조.

부흥의 흐름 속에서 공광삼의 『공양춘추경전통의』가 등장하여 공양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공광삼은 이 책에서 “삼과구지”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그가 전통 이론에 대해 지닌 독창적 견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 학계가 역사와 윤리를 새롭게 사유하려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공광삼의 “삼과구지(三科九旨)”⁵⁾는 그가 『춘추』를 해석하는 핵심이 된다. 공광삼은 『춘추』의 大義를 세 가지 과(科)로 나누었다. 첫 번째 과는 “천도(天道)”로, “시(時), 월(月), 일(日)”의 기록을 통해 천의(天意)의 작용을 정확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는 “왕법(王法)”으로, “기(譏), 폼(貶), 절(絶)”의 문체를 사용하여 인간 관계와 도덕적 판단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 과는 “인정(人情)”으로, “존(尊), 친(親), 현(賢)” 등 인정 사상과 인간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공광삼의 “삼과구지”에 대한 재해석은 그의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며, 특히 한대 공양학과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삼과구지”는 공광삼이 『춘추』를 해석하는 주요 원칙으로, 천도, 왕법, 인정의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홉 가지 구체적인 항목(즉 ‘시(時) · 일(日) · 월(月) · 기

5) 공광삼은 ‘삼과구지(三科九旨)’가 『춘추』 경문의 서술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분류하는 시도라고 했다. 첫 번째 과인 ‘시(時), 월(月), 일(日)’은 거의 하휴(何休)의 『해고(解詁)』에서 언급된 ‘삼세이사(三世異辭)’의 규칙적 변화를 따르고 있으나, 나머지 두 과인 ‘기(譏), 폼(貶), 절(絶)’과 ‘존(尊), 친(親), 현(賢)’은 사실 『춘추』 경문의 서술 방식을 통해 『춘추』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을 밝히는 데 있으며, 이른바 ‘구지(九旨)’는 사실 ‘삼과’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공광삼의 ‘삼과’와 ‘구지’는 하나는 강(綱)이요, 다른 하나는 목(目)이기에 둘 사이에 차이는 없다. 하휴의 ‘삼과구지’도 역시 ‘삼과’와 ‘구지’가 같은 것이지만, 공광삼이 논한 ‘천도(天道), 왕법(王法), 인정(人情)’과 비교하면 두 항목(綱目)은 분명히 다르다. 오히려 송충이 말한 ‘삼과’와 ‘구지’가 주목할 만한데, 송씨가 말한 ‘삼과’는 하휴와 일치하며, 공광삼과는 달리한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을 것이다.

(譏)·핍(貶)·절(絶)·존(尊)·친(親)·현(賢)]을 보조로 사용한다. 공광삼은 춘추학의 여러 문제를 재해석하고 깊이 있게 사유함으로써 독특한 사상 체계를 형성하였다.

본 논문은 공광삼이 『공양춘추경전통의』에서 제시한 “삼과구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광삼의 “삼과구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출발점으로 하여, 『공양춘추경전통의』에서 제시한 그의 관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점이 청대 및 이후의 공양학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학계에서 공양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에 유익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천도(天道)와 「시(時)·월(月)·일(日)」

“삼과구지”는 공양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여겨졌으며, 한(漢)대 이후 『공양전』을 언급할 때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춘추』를 해석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따라서 “삼과구지”는 공양학에서 『춘추』를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공광삼 이전에도 『춘추』의 “삼과구지”에 대한 이론은 두 가지 해석이 있었다.⁶⁾ 첫째, 전한(前漢)의 동중서(董

6) 만약 먼저 동중서의 ‘육과(六科)’, ‘십지(十指)’를 논하지 않는다면, 공양학(公羊學)의 ‘삼과구지(三科九旨)’라는 용어는 공광삼 이전에 적어도 두 가지 해석 방식이 있었다. 하나는 하휴(何休)의 『문시례(文諡例)』에서 말한 “삼과구지는 본래 동일한 것”이라는 설명으로, ‘장삼세(張三世), 존삼통(存三統), 이내외(異內外)’에서 ‘구지’를 분석해 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송충가 위서(緯書)인 『춘추설(春秋說)』에 주석을 단 것으로, 그 ‘삼과’의 실질적인 내용은 하휴와 같으나, ‘구지’는 별도로 지시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민국 시기의 가소민(柯劭忞)은 이 두 가지 설을 근거로 추론하여, 이른바 ‘삼과’(하휴와 송충의 논점이 일치하는 부분)는 공양학의 관점이며, ‘시(時), 월(月), 일(日), 왕(王), 천왕(天王), 천자(天子), 기

仲舒)는 『춘추』 242년 동안의 기록을 “육과(六科)”⁷⁾와 “십지(十指)”⁸⁾

(議), 폄(貶), 절(絕)’이라는 이 ‘구지’는 곡량학(穀梁學)의 내용일 것이라고 했다. 柯劭忞, 『춘추곡량전주(春秋穀梁傳註)』, 광사: 광시사범대학출판사, 2018을 참조.

- 7) ‘六科’는 『春秋繁露』, 「正貫」에서 “『춘추(春秋)』는 천하를 다스리는 도의(道義)의 근거이다! 이 책은 여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섯 가지 뜻을 말하고 있다. 그런 다음 천도(天道)의 시작을 인용하여, 유동 변화하는 만사만물에 퍼뜨리고, 그 속의 이치를 관통하여, 그 문사를 여러 종류의 사물 변화에 분산하여 기록했다. 그러므로 득실의 발생 원인을 기록하고 나면, 존귀와 비천, 높고 낮음의 차별이 생기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죄를 정하고, 법에 따라 처벌의 경중을 결정한 후, 친소와 생사의 구분이 명확해진다. 원칙을 세워 존비의 서열을 확립한 후, 군신의 직책이 명확히 구분된다. 천하의 현량 방정(賢良方正)하고 덕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을 기록하여, 겸양의 미덕이 있는 곳을 밝히면 사람들이 다시 바른길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깊숙하고 은미한 일은 사람과 멀지 않으니, 가까이 하면 그 깊은 비밀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후에야 사회의 만사만물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이를 인사에 운용하면 윤리와 상도가 어그러지지 않게 된다[『春秋』, 大義之所本耶! 六者之科, 六者之旨之謂也. 然後援天端, 布流物, 而貫通其理, 則事變散其辭矣. 故誌得失之所從生, 而後差貴賤之所始矣. 論罪源深淺, 定法誅, 然後絕屬之分別矣. 立義定尊卑之序, 而後君臣之職明矣. 載天下之賢方, 表廉義之所在, 則見復正焉耳. 幽隱不相逾, 而近之則密矣, 而後萬變之應無窮者. 故可施其用於人, 而不悖其倫矣.],”라고 설명하였다.

- 8) ‘十指’는 『春秋繁露』, 「十指」에서 “『춘추』는 242년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천하는 넓고, 사물의 변화도 매우 복잡하며, 『춘추』는 이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춘추』의 대략적인 요지는 열 가지로 나뉜다. 이 열 가지 요지는 인사(人事)가 유지되고, 군왕의 교화가 유포되는 근거이다. 사변(事變)을 열거하면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첫 번째 요지이며, 사변의 영향이 미치는 여러 측면을 발견하는 것이 두 번째 요지이다. 사변의 영향을 토대로 그 근원을 다스리는 것이 세 번째 요지이며, 다스리는 방법은 나무의 줄기를 강화하고 가지를 약화시키며, 근본을 확장하고 지엽을 축소하는 것이 네 번째 요지이다. 혐의를 변별하고 동이(同異)를 구분하는 것이 다섯 번째 요지이며, 현명한 인재의 등용을 평가하고 그들이 잘하는 재능을 구별하는 것이 여섯 번째 요지이다. 이웃 사람과 친선을 도모하고, 먼 곳의 사람을 불러들이며, 백성의 욕망과 일치하는 것이 일곱 번째 요지이다. 주나라의 문채를 계승하고 소박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덟 번째 요지이며, 나무가 불을 낳고 불은 여름에 해당하며 봄을 시작으로 삼는 것이 아홉 번째 요지이다. 징벌받은 일을 정확히 풍자하고 괴이한 일이 발생한 원인을 고찰하는 것이 열 번째 요지이다[『春秋』二百四十二年之文, 天下之大, 事變之博, 無不有也. 雖然, 大略之要有十指. 十指者, 事之所繫也, 王化之所由得流也. 舉事變, 見有重焉, 一指也, 見事變之所至者, 一指也. 因其所以至者而治之, 一指也. 強幹弱枝, 大本小末, 一指也. 別嫌疑, 異同類, 一指也. 論賢才之義, 別所長之能, 一指也. 親近來遠, 同民所欲, 一指也. 承周「文」而反之「質」, 一指也. 木生火, 火為夏, 天之端, 一指也. 切刺議之所罰, 考變異之所加, 天之端, 一指也.],”라고 설명하였다.

공광삼(孔廣森)의 『공양춘추경전통의(公羊春秋經傳通義)』에서 ‘삼과구지(三科九旨)’에 대한 새로운

로 분류하여, 『춘추』의 대의(大義)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사회 질서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중서는 『춘추』를 성인(聖人)에 의해 전해진, 인간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고전으로 보고, “육과”를 통해 사회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둘째, 후한(後漢)의 공양학자 하휴(何休)는 『춘추공양문시례(春秋公羊文謚例)』에서 “삼과구지”를 하나의 통합된 이론으로 제시했으며, 하휴의 “삼과”는 “장삼세(張三世)”, “존삼통(存三統)”, “이내외(異內外)”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구지”를 도출하여 『춘추』의 사상을 완전하게 표현하려 했다. 또 다른 해석은 송충(宋衷, ?~219)이 『춘추설』에서 제시한 주석에서 나타난다. 송충 역시 “삼과” 개념을 따르지만, “구지”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송충의 「9가지」는 세밀한 의리와 법도에 대한 서술이 더욱 많다. 공광삼은 이전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삼과구지를 독특하게 해석하는데, 동중서와 하휴의 이론적 관점을 융합함으로써 개성을 갖춘 춘추학 사상을 발전시켰다.

공광삼이 말한 “삼과구지”는 하휴나 송충의 주장과는 다르다. 공광삼의 『공양춘추경전통의』는 “삼과”, 즉 ‘천도(天道)’, ‘왕법(王法)’, ‘인정(人情)’을 주요 원칙으로 삼고, 이를 구체화하는 아홉 가지 세부 조목 ‘시(時)’, ‘일(日)’, ‘월(月)’, ‘기(譏)’, ‘핍(貶)’, ‘절(絶)’, ‘존(尊)’, ‘친(親)’, ‘현(賢)’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춘추(春秋)』는 책으로서, 위로는 ‘천도(天道)’를 본받고, 중간에는 ‘왕법(王法)’을 사용하며, 아래로는 ‘인정(人情)’을 다스린다. 천도를 받들지 않으면 ‘왕법’이 바르지 못하고, 인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왕법’이 행해지지 않는다. 천도라는 것은, 첫째 ‘시(時)’, 둘째 ‘월(月)’, 셋째 ‘일(日)’이다. 왕법이라는 것은, 첫째 ‘기(譏)’, 둘째 ‘핍(貶)’, 셋째 ‘절(絶)’이다. 인정

이라는 것은, 첫째 ‘존(尊)’, 둘째 ‘친(親)’, 셋째 ‘현(賢)’이다. 이 ‘삼과구지(三科九旨)’가 이미 배치된 이후, 한결같이 ‘내외의 다른 이례(異例)’와 ‘원근의 다른 용어(異辭)’에 정해진 대로 조정한다. 착종(錯綜)하여 작제(酌劑)하며, 서로를 필요로 하여 체계를 이룬다. 『춘추』를 전한 자는 세 가문이 있으나, 오직 공양씨만이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⁹⁾

공광삼은 『춘추』의 삼전 중 오직 공양학과만이 “삼과구지”라는 이론을 제시했다고 본다. 그가 소위 삼과구지는 『춘추』의 저자가 책을 쓰는 서술 방식을 가리키며, 그 핵심은 『춘추』의 시비와 옳고 그름을 논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견해는 하휴가 『춘추』를 그 저자가 이상을 걸고 제도 개선을 주창했던 의법(義法)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우선 공광삼은 “천도(天道)”를 삼과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보고, 『춘추』의 “삼과구지” 체계에서 “천도”의 의미를 상세히 풀이한다. 그는 『춘추』의 ‘시(時)’, ‘월(月)’, ‘일(日)’에 대한 기록 방식이 천도와 사계절의 흐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자가 단어와 표현을 사용할 때 의도적으로 신중함을 기했음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춘추』는 비록 노나라 역사서의 구명(舊名)이지만, 성인은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바꾸지 않았으니, 반드시 그 안에 새로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춘(春)’은 양기 속에서 만물이 성장함을 상징하고, ‘추(秋)’는 음기 속에서 만물이 성숙함을 상징한다. ‘춘’으로 선행을 상주고, ‘추’로 악행을 형벌하므로 이 이름으로 경전을 명명한 것이다. … ‘춘’은 왕도를 통

9)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敘」: 『春秋』之為書, 上本「天道」, 中用「王法」, 下理「人情」. 不奉天道, 「王法」不正; 不合人情, 「王法」不行. 天道者, 一日時, 二日月, 三日日. 王法者, 一日譏, 二日貶, 三日絕. 人情者, 一日尊, 二日親, 三日賢. 此『三科九旨』既佈, 而壹裁以「內外之異例」, 「遠近之異辭」, 錯綜酌劑, 相須成體. 凡傳『春秋』者三家, 粵唯公羊氏有是說焉.

섭하고, 왕도는 월(月)을 통섭하며, 월은 일(日)을 통섭한다. 『춘추』에서 가장 중시하고 가장 신중히 여긴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¹⁰⁾

공광삼은 공자가 노나라 역사서의 이름이던 『춘추』를 그대로 사용한 이유가 천도 운행의 원리를 담고 있으며, 이는 천도 사계의 논리를 반영한다고 해석한다. 그는 이를 통해 계절의 조화로 선과 악에 대한 상벌을 상징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봄은 양(陽)에 속해 만물이 자라나고, 가을은 음(陰)에 속해 만물이 성취되고 수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춘”과 “추”는 자연의 순환 질서를 반영할 뿐 아니라 공자가 세상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신중히 고려했음을 내포한다. 이러한 논리는 또한 『춘추』의 시(時), 월(月), 일(日)에 대한 기록 방식에서 드러나는 신중한 선택을 설명하며, “봄은 왕을 통섭함, 왕은 월을 통섭함, 월은 일을 통섭함[春統王, 王統月, 月統日].”의 구조를 통해 천도를 반영하고 인간사와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춘추』는 사건의 서술이 매우 간결하고, 표현이 매우 간요(簡要)적이며, 전쟁과 토벌을 기록할 때 단지 전쟁과 토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 군대의 이름은 알 수 없다. 결맹(結盟)과 병(聘)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막은 알 수 없다. 만약 정황이 자세하게 기술된 경우, 동일한 공적에 대해 다른 상을 주거나, 서로 다른 죄를 지고도 동일한 벌을 받는 경우, 그 억제하고 드날리며, 올리고 물리치는 원칙은 반드시 문맥을 따라 기술되어야 하며,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사건을 기록한 한마디로는 그 안에 억제하고 드날리며, 올리고 물리치는 맥락을 스스로 찾아낼 수는 없

10)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敘」: 「春秋」雖魯史舊名, 聖人因而不革, 必有新意焉! 「春」者, 陽中萬物以生; 「秋」者, 陰中萬物以成, 善以春賞, 惡以秋刑, 故以是名其經。… 春以統王, 王以統月, 月以統日, 『春秋』所甚重甚謹者, 莫若此。

다. 참으로 철에 매어 기록함(繫時)과 달에 매어 기록함(繫月)과 날짜를 매어 기록함(繫日)에 따라 찾아보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된다면, 그 명료함은 사전(史傳)의 논평과 찬사에 비견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님이 있다. 동산조씨(東山趙氏)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루 안에 결정된 일은 일(日)로 기록하고, 한 달 안에 결정된 일은 월(月)로 기록하며, 한 달을 넘는 것은 시(時)로 기록하는 것이 사관의 일관된 법칙이다.’라고 했다.”¹¹⁾

『춘추』는 사건을 기록할 때 “일(日)”, “월(月)”, “시(時)”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 요소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도덕적 평가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신중히 고려한 결과이다. 공광삼은 『춘추』가 이러한 시간 요소를 다르게 기록함으로써 사건의 구체성과 중요성을 전달했을 뿐 아니라, 사시(四時)의 도리에 통해 선악(善惡)을 구별하는 도덕적 평가를 암묵적으로 제시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진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도덕적 가치와의 조화를 이루어낸 기록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가 『춘추』를 편수할 때, 上下와 内外의 구별이 없고, 天道와 人事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사서에 기록된 내용 중 문자는 같으나 일이 다른 경우, 일이 같으나 문자가 다른 경우에는 일(日)과 달(月)을 매어 기록함을 빌려 그 변화를 밝히고 의문을 해결했다. 대체로, ‘일(日)’을 상세하게 기록한 경우에는 ‘일을 기록하지 않음’을 간략하게 하고, ‘달(月)’을 상세하게 기록한 경우에는 ‘월을 기록하지 않음’을 간략하게 한다. ‘일을

11)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敘」: 『春秋』之序事甚簡, 稱言甚約, 記戰伐知戰伐而已, 不知其師之名; 記盟聘知盟聘而已, 不知其事之為. 若乃情狀委曲, 有同功而異賞, 亦殊罪而共罰, 抑揚進退要當隨文各具, 非可外求; 但據記事一言, 終無自尋其抑揚進退之緒, 誠求諸繫時, 繫月, 繫日, 繫殺之不相襲, 則其明晰有不啻若史傳之論贊者. 東山趙氏嘗言之曰: 「事以日決者, 繫日; 以月決者, 繫月. 踰月則繫時, 此史氏之恆法也」.

기록하지 않음'을 상례로 삼으면 '일을 기록함'을 변화를 의미하고, '일을 기록함'을 상례로 삼으면 '일을 기록하지 않음'을 변화를 의미하며, 심지어 '월을 기록하지 않음'을 특별한 경우로 본다. '월을 기록함'을 상례로 삼으면 '월을 기록하지 않음'을 변화로 삼고, '월을 기록하지 않음'을 상례로 삼으면 '월을 기록함'을 변화로 삼으며, 심지어 '일을 기록함'을 특별한 경우로 본다. 이러한 방법은 학자들로 하여금 문서를 엮어서 포편을 가한 사건을 차례로 배열하여 그 규칙을 찾도록 하는 데 있다. 쇄세(衰世)를 구별하는 경계는 매우 엄격하며, 선과 악에 천심(淺深), 기변(奇變)에 극난(極亂)은 모두 '일'과 '월'을 통해 드러나며, 마치 손바닥 위에 보여주듯 명확하게 나타난다. 참으로 훌륭하다! 당대(唐代)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오직 조방(趙沔, 1319~1369) 한 사람뿐이다.”¹²⁾

공광삼이 보기에, “일(日)”, “월(月)”, “시(時)” 기록 방식에 대한 『춘추』의 취사선택은 “계시(繫時) · 계월(繫月) · 계일(繫日)”의 항법(恒法)이라는 엄격한 사관(史官) 법칙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원대의 『춘추』 학자 조방(趙沔, 1319~1369)은 “사건을 일(日)로 결정할 경우 ‘일’을 기록하고, 월(月)로 결정할 경우 ‘월’을 기록하며, 한 달을 넘길 경우에는 ‘시(時)’로 기록한다.”¹³⁾라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일(日)”은 사건의 세부를 부각하고, “월(月)”은 사건의 전체적 판단을, “시(時)”는 더 넓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공광삼은 조방의 견해를 계승하며, 『춘추』에서 “일(日), 월(月), 시(時)”를 사건의 경중,

12)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敘」: 孔子之修『春秋』也, 至於上下內外之無別, 天道人事之反常, 史之所書, 或文同事異, 事同文異者, 則假日月以明其變, 決其疑. 大抵以日為詳, 則以不日為略; 以月為詳, 則以不月為略. 其以不日為恆, 則以日為變; 以日為恆, 則以不日為變, 甚則以不月為異. 其以月為恆, 則以不月為變, 以不月為恆, 則以月為變, 甚則以日為異. 將使學者屬辭比事, 以求之其等, 褒勢分甚嚴, 善惡淺深, 奇變極亂, 皆以「日」, 「月」見之, 如示諸掌. 善哉! 自唐迄今, 知此者惟沔一人哉.

13) 趙沔, 『春秋屬辭』: 事以日決者, 繫日. 以月決者, 繫月. 踰月則繫時.

길흉, 의리적 관계에 따라 기록함으로써 공자가 시간을 통해 사물의 선악을 판단하고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사건이 “일(日)”을 기준으로 기록되는 것이 보통이라면, “일”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사건이 평소와 다를름을 암시하며, “월”이 기본적으로 쓰인다면 “월”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의 특수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이와 같은 시간 기록 방식을 통해 『춘추』의 경문이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서 도덕적 평가를 내포한 지침을 제시한다고 여겼다. 공광삼은 조방의 학술적 관점을 따를 뿐 아니라, 이러한 시간 요소의 정확한 사용이 『춘추』에서 선악 구별과 이례적인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이는 후세 학자들이 “천도(天道)와 인사(人事)”의 미묘한 의미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공광삼은 이러한 엄밀한 “사관(史官)의 항상 법칙[史官之恆法]”이 『춘추』의 천도와 의리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간주하였으며, 심지어 당대에서 청대에 이르기까지 이 원칙의 깊은 뜻을 체득한 사람은 오직 조방뿐이라고 여겼다.

“개괄적으로 예를 들면, ‘제나라와 강화합(及齊平)’¹⁴⁾ ‘정나라와 강화합(及鄭平)’¹⁵⁾은 모두 ‘평(平)’이지만, 하나는 신뢰할 만하고 하나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월(月)을 기록함과 월을 기록하지 않음에 따른 판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담백희(鄴伯姬)가 노나라로 돌아왔음’¹⁶⁾, ‘기백희(杞伯姬)가 돌아왔음’¹⁷⁾은 모두 ‘출(出)’이지만, 하나는 죄가 있고 하나는 죄가 없는 것은 월(月)을 기록함과 월을 기록하지 않음에 따른 판결할 수 있을 것

14) 『春秋左氏傳』「莊公」13년: [傳]冬, 盟于柯, 始及齊平也.

15) 『春秋左氏傳』「定公」11년: [經]冬, 及鄭平.

16) 『春秋左氏傳』「宣公」16년: [經]秋, 鄴伯姬來歸.

17) 『春秋左氏傳』「莊公」27년: [經]冬, 杞伯姬來, 歸寧也.[傳]凡諸侯之女, 歸寧曰來, 出曰來歸. 夫人歸寧曰如某, 出曰歸於某.

이다. ‘초구(楚丘)에 성을 쌓았음’¹⁸⁾이 내읍(內邑)으로 의심받지 않는 것은 월(月)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진나라 사람이 계손행부(季孫行父)를 잡았음’¹⁹⁾과 ‘제나라 사람이 선백(單伯)을 잡았음’²⁰⁾은 무엇이 다른가? 월(月)을 기록함에 의해 구별된다. ‘진후(晉侯)가 조(曹)나라로 쳐들어갔음’²¹⁾과 ‘송공(宋公)이 조나라로 쳐들어갔음’²²⁾은 무엇이 다른가? 일(日)을 기록함에 의해 구별된다. ‘무궁(武宮)을 또 세웠음’²³⁾과 ‘양궁(煬宮)을 또 세웠음’²⁴⁾에서 계손은유(季孫隱如)가 이를 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일(日)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후가 서로 잡는’²⁵⁾ 사례는 처음으로 송인(宋人)의 기록에 보인다. ‘등자영제(滕子嬰齊)를 잡았음’²⁶⁾은 그 약행으로 인해 월(月)을 기록했다. ‘공여(公如)’의 예시에서는 양공(襄公)²⁷⁾, 소공(昭公)²⁸⁾이 초(楚)나라에 간 것은 위험한 행위이므로 월(月)을 기록했다. ‘회(會)’²⁹⁾의 예시에서는 환공(桓公) 편의 끝에서 모두 위험한 회합으로 월(月)을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³⁰⁾

공광삼은 『춘추』에서 유사한 사건을 기록할 때의 작문 방법의 차이

-
- 18) 『春秋左氏傳』「僖公」2년: [經]二年春王正月, 城楚丘.
 19) 『春秋左氏傳』「成公」16년: [經]九月, 晉人執季孫行父, 舍之于莒丘.
 20) 『春秋左氏傳』「文公」14년: [經]冬, 單伯如齊, 齊人執單伯,
 21) 『春秋左氏傳』「僖公」28년: [經]三月丙午, 晉侯入曹, 執曹伯, 畀宋人.
 22) 『春秋左氏傳』「哀公」8년: [經]八年春王正月, 宋公入曹, 以曹伯陽歸.
 23) 『春秋左氏傳』「成公」6년: [經]二月辛巳, 立武宮.
 24) 『春秋左氏傳』「定公」원년: [經]九月, 大雩, 立煬宮.
 25) 『春秋左氏傳』「昭公」23년: [傳]所謂盟主, 討違命也. 若皆相執, 焉用盟主.
 26) 『春秋左氏傳』「僖公」19년: [經]十有九年春王三月, 宋人執滕子嬰齊.
 27) 『春秋左氏傳』「襄公」28년: [經]十有一月, 公如楚.
 28) 『春秋左氏傳』「昭公」7년: [經]三月, 公如楚.
 29) 『春秋左氏傳』「桓公」18년: [經]十有八年春王正月, 公會齊侯于濼, 公與夫人姜氏遂如齊.
 30)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敘」: 推舉其概, 「及齊平」, 「及鄭平」, 均「平」也, 而一信一否, 月, 不月之判也. 「郊伯姬來歸」, 「杞伯姬來歸」, 均「出」也, 而一有罪, 一無罪, 月, 不月之判也. 「城楚邱」之不嫌於內邑, 以其月也. 「晉人執季孫行父」, 何以別於「齊人執單伯」? 以其月也. 「晉侯入曹」, 何以別於「宋公入曹」? 以其日也. 「武宮亦立」, 「煬宮亦立」, 而知季孫隱如之為之者, 以其不日也. 「諸侯相執」例時, 始見於宋人; 執滕子嬰齊, 則惡而月之. 「公如」例時, 襄, 昭如楚, 則危而月之. 「會」例時, 終桓公之篇, 悉危而月之, 可得而謂無意乎?

를 분석함으로써 “시(時), 월(月), 일(日)” 표기의 특별한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예를 들어, “제나라와 화평했다.[及齊平]”와 “정나라와 화평하였다.[及鄭平]”의 경우, 두 사건 모두 “평(平)”으로 묘사되었으나 하나는 “월(月)”이 기록되고 다른 하나는 기록되지 않았다. 공광삼에 따르면 전자는 신뢰할 만한 사건이고 후자는 신뢰받지 못한 사건이 된다. 또한, “담백희가 노나라로 돌아왔다.[鄆伯姬來歸]”와 “기백희가 돌아왔다.[杞伯姬來歸]”에서는 “래귀(來歸)”로 똑같이 표기하지만, 하나는 “월”이 기록되고 다른 하나는 기록되지 않는데, 전자와 후자의 사건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공광삼은 이러한 문장들이 단순한 형식의 차이가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의 결과를 드러내는 가치적 경향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공광삼은 『춘추』 경문에서 시간 표기의 미세한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도덕적이고 역사적인 교화(教化)를 발견하려고 했다. 이는 ‘삼세이사(三世異辭)’로 『춘추』 기록의 변화를 해석하며 이를 세 단계의 체계적 변동으로 정리한 하휴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공광삼은 이러한 삼세설(三世說)의 관점을 채택하지 않고, 오히려 “시(時), 월(月), 일(日)”의 사용 방식 자체에 집중하여 이를 사건의 선악 판단과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보았다. 이러한 태도는 공양학파의 분석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삼세(三世)” 이론이 가지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연구 방식을 보여준다.

“위로 왕의 정령을 받들지 않으면 즉위할 수 없으므로, 먼저 ‘정월’을 말하고 그 후에 ‘즉위’를 말한다. 정령이 왕에 의해 발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으므로, 먼저 ‘왕’을 말하고 그 후에 ‘정월’을 언급한다. 왕이라는 자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법도가 없으므로, 먼저

‘봄’을 말하고 그 후에 ‘왕’을 언급한다. 하늘이 그 근본을 깊이 바로잡지 않으면 교화를 이룰 수 없으므로, 먼저 ‘원(元)’을 말하고 그 후에 ‘봄’을 언급한다. 이 다섯 가지가 같은 날 동시에 나타나 서로 의지하여 전체를 이루니, 이것이 천인(天人)의 대본(大本)이다.”³¹⁾

공광삼은 『춘추좌씨전』, 「은공」의 편수인 “원년 봄 왕 정월”³²⁾을 해석하면서 “천(天), 왕(王), 정(政), 시(時), 월(月)” 다섯 요소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이들을 천인합일의 틀로 통합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천, 시, 월”은 천도(天道)에 속하고, “왕, 정”은 인도(人道)를 나타낸다. 이 다섯 요소는 경문에서 동시에 드러나 서로 어우러져 체계를 이루며, 천도와 인도의 밀접한 관계와 합일성을 상징한다. 공광삼은 먼저 “봄”이 언급되고 그다음 “왕”이 나오는 것은 하늘의 뜻이 먼저임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어서 “정월”이 언급되고 “즉위”로 이어지는데, 이는 인사(人事)의 시간적 순서가 천도와 일치하는 이상적 질서를 보여준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해석은 문자적으로 “천, 왕, 정, 시, 월”의 관계를 드러낼 뿐 아니라, 천도와 인도가 서로 소통하는 이론적 해석을 이루어냈다. 천의 뜻이 인간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 정치의 근간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공광삼의 이러한 해석은 그가 동중서(董仲舒)의 “천인감응(天人感應)”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그의 저서 『공양통의』는 『춘추』에 담긴 “천인지 대본(天人之大本)”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천도와 인도가 서로 의

31)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敘」: 不上奉王之政, 則不得即位, 故先言正月, 而後言即位. 政不由王出, 則不得為政. 故先言王而後言正月也. 王者不承天以制號令則無法, 故先言春而後言王. 天不深正其元, 則不能成其化. 故先言元而後言春, 五者同日並見, 相須成體, 乃天人之大本.

32) 『春秋左氏傳』「隱公」원년: 元年春, 王正月.

존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자연과 인간사 간의 동조와 일치성을 암시한다.

III. 왕법(王法)과 「기(讖)·핍(貶)·절(絶)」

『춘추』의 “기(讖), 핍(貶), 절(絶)” 문체는 “왕법(王法)”과 대응하는 것이다. 『춘추』의 경문에서는 “기(讖)”, “핍(貶)”, “절(絶)”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데, “기”, “핍”, “절”은 『춘추』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얻어진 뜻이다. 그중 “기”는 비난을 의미하며, 언어상의 비난적 의미를 담고 있다.³³⁾ “핍”은 나쁘게 평가와 감퇴를 의미하며, 행위에 대한 폄하를 나타내고 있다.³⁴⁾ “절”은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와의 단절을 의미하며, 단호히 부정하는 의미를 갖는다.³⁵⁾ 공광삼은 『공양춘추경전통의』 「서(序)」에서 “기, 핍, 절”은 『춘추』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포핍(褒貶) 방식이며, 『춘추』의 “발란지술(撥亂之術)”, 즉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고 정도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깊은 도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禮)’는 생(生)과 살(殺)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천도는 이를 통해 그 시혜를 완성한다. 형벌과 상벌이 치우치지 않으며, 왕은 이를 통해 그 교화를 완성한다. 『춘추』가 아니라면 누가 이를 따를 수 있겠는가? 난세를 바로잡는 방법, 즉 ‘기(讖)’, ‘핍(貶)’, ‘절(絶)’이 모두 완비되어 있다.”³⁶⁾

33) 『說文解字』: 讖, 誹也.

34) 『說文解字』: 貶, 損也.

35) 『說文解字』: 絶, 斷絲也.

36)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 「敘」: 「禮」, 生殺不相悖, 天以成其施; 刑賞不偏廢, 王以成其

공광삼은 『춘추』가 “기(譏)”, “핍(貶)”, “절(絕)”의 문체를 통해 “천도(天道)”와 “왕법(王法)”의 합일을 실현했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천도(天道)”는 시간(時), 월(月), 일(日)의 기록에 대한 『춘추』의 엄격한 기준을 의미하며, 이는 천지의 질서를 인간 세계에 도입하는 방식이다. 한편 ‘왕법’은 인간의 도리와 예제의 실천을 중시하며, 예와 행동 규범을 통해 사회를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 공광삼은 『공양춘추경전통의』에서 “예(禮)”는 생(生)과 살(殺)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천도는 이를 통해 그 시혜를 완성한다. 형벌과 상벌이 치우치지 않으며, 왕은 이를 통해 그 교화를 완성한다. [禮, 生殺不相悖, 天以成其施; 刑賞不偏廢, 王以成其化].”고 명시했다. 『춘추』는 “기, 핍, 절”을 통해 “천도”를 “왕법”으로 구체화하여 도덕적 가치관을 역사 기록과 비판 속에 녹여냈고, 『춘추』는 정치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성인의 예와 도덕 규범에 대한 추구를 드러냈다. 이러한 “기, 핍, 절”의 필법은 “발란반정(撥亂反正)”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왕법에 위엄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공광삼은 이러한 제도와 도덕 질서의 구축이 『춘추』의 대의를 체현한다고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천도”는 시간의 순서(시, 월, 일)를 바탕으로 “왕법”의 규범이 성립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으로 인해 “기, 핍, 절”은 단순한 문체적 스타일이 아니라 통치자가 예법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도덕적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 행동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공광삼은 「은공」¹¹년의 경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천도시월(天道時月)”과 “왕법예도(王法禮度)”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³⁷⁾ 그가 『공양춘추경전통의』 「서」에서 “천도를 받들지 않으면 왕법

化. 非『春秋』孰能則之? 撥亂之術, 譏與貶, 絕, 備矣.

37) 『春秋公羊傳』「隱公」11년: [經]冬十有一月壬辰, 公薨. [傳]隱何以無正月? 隱將讓乎桓, 故不有其正月也.

이 바르지 않다.”³⁸⁾고 말한 것은 천도의 시령(時令)과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왕법과 예도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손헌(驛軒)³⁹⁾은 신중히 고찰했다. 『춘추곡량전』에서도 ‘은공 10년에는 정월이 없었는데, 은공 스스로가 합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⁰⁾ 원년(元年)에 정월을 둔 것은 은공이 본래 합당한 절차가 아님을 의미하며, 문왕의 ‘정월’로써 다스림을 받았지만, 은공은 감히 즉위하지 못했다. 『춘추』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시(五始)’⁴¹⁾이며, 모든 일은 처음이 바르지 않으면 이후에도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은공이 그 예이다. 노나라 사람들은 은공의 모친이 계실(繼室)로서 부인의 예를 받았고, 환공의 모친은 후취(後娶)하였음을 알았을 뿐이다. 이는 군자가 세밀한 부분에서 존비(尊卑)를 판단할 수 있음을 뜻한다. 중자(仲子)는 처음부터 귀하게 맞이되었고, 성자는 처음에는 첩으로 맞이되어 나중에 귀하게 되었으니, 이 역시 처음부터 분별할 수 있을 뿐이다. 『역경』에서 “군자는 처음을 삼간다.”⁴²⁾라고 했다. 『대대례기(大戴禮記)』 「성덕(盛德)」에서는 “명당은 천법(天法)이며, 예도(禮度)는 덕법(德法)이다.”⁴³⁾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시’의 뜻을 신중히 고찰할 수 있다면, 하늘의 법칙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없고, 예의와 법도에 명확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만물이 이로 인해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이다.”⁴⁴⁾

38)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 「敘」: 不奉天道, 王法不正.

39) 孔廣森의 호는 驛軒이다.

40) 『春秋穀梁傳』 「隱公」 11년: [傳] 隱十年無正, 隱不自正也.

41) 『春秋』의 記事는 元年·春·王·正月·公即位 등의 다섯 가지 일로 시작하는데, 이를 五始라 한다.

42) 『禮記』 「經解」: 『易』曰: 君子慎始, 差若毫厘, 謬以千里.

43) 『大戴禮記』 「盛德」: 故明堂, 天法也; 禮度, 德法也; 所以御民之嗜慾好惡, 以慎天法, 以成德法也. 刑法者, 所以威不行德法者也.

44)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 「敘」: 驛軒謹案, 『穀梁傳』亦曰: 「隱十年無正, 隱不自正也」. 元年有正者, 言乎隱之非正, 以文王之正月治之, 而公不敢即位也. 『春秋』之教莫大乎「五始」, 凡事不正其始, 必不善其後, 隱公是已. 魯人但知隱母繼室, 禮同夫人, 且桓母後娶, 乃君子必能決其尊卑於微者; 仲子始媵即貴, 聲子始媵後貴, 亦唯辨之於始焉爾. 易說曰: 「君子慎始」. 盛德記曰: 「明堂, 天法也; 禮度, 德法也」. 故能審「五始」之義, 則天法無不順, 禮度無不明,

공광삼은 「은공」 11년의 경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은공이 재위 기간 동안 자신의 자리를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정월(正月)”의 예(禮)를 지키지 못했으며, 덕행과 군주의 위치가 바르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 “정월”의 결여는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은공이 왕법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했음을 상징하며, 근본을 세울 “시작”이 없었기에 그의 통치는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공광삼은 은공이 “오시(五始)”의 뜻을 어겼다고 보았다. 이 “오시”란 준비와 질서를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이를 무시하면 정통의 도덕과 예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공광삼의 견해에 따르면, 『춘추』가 전달하는 “오시”는 단순히 문체 규범에 그치지 않고 천하를 다스리는 예의의 근원이며 질서의 본질로, 이는 천도(天道)와 인도(人道)의 결합에 직결된다. “오시”에 대한 신중한 태도와 중시하는 마음은 “왕법 예도(王法禮度)”의 기초를 이루며, 그가 말하길 “예도의 모든 것이 분명해야 만물이 이를 통해 바르게 될 수 있다[禮度無不明, 萬物由是可得而正矣].”라고 했다. 따라서 공광삼이 말하는 “『춘추』의 가르침[春秋之教]의 내포와 의미는 “왕법 예도”에 있으며, 이는 “기(譏)”, “핍(貶)”, “절(絶)”이라는 필법 뒤에 담긴 『춘추』의 대의를 나타낸다. 공광삼은 『역경(易經)』과 『대대례기(大戴禮記)』, 「성덕(盛德)」의 구절을 인용하여, “오시”의 뜻을 신중히 파악할 때에만 천법(天法)과 예도(禮度)가 서로 결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오시”를 신중히 준수할 때 천도는 자연히 원활해지고 예도는 분명해지며, 만물은 그로 인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환공」 6년의 기록에 따르면, 노나라 환공(桓公)의 아들 동(同)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9월 정묘일에 아들 동(同)이 출생했다.”이다. 여기의

萬物由是可得而正矣.

전문에서는 “오래도록 노나라가 정통적인 적자(嫡子)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공양자(子公羊子)가 말하기를 ‘그 말은 노나라 환공과 함께한 것을 증오한 것이다.’라고 했다.”⁴⁵⁾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공광삼은 소초(蕭楚)의 말을 인용하여 이 기록에 대해 자세히 해석한다.

“소초(蕭楚)가 말했다. ‘환공은 출생한 예(禮)를 거행하여 사서(史書)에는 반드시 ‘세자(世子)’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공자가 『춘추』를 편수(編修)할 때에는 그 ‘세(世)’자를 삭제했을 뿐이다. 환공은 형을 죽이고 나라를 탈취하였으니, 왕법에 따라 응당 벌하고 멸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에 대해서는 ‘세(世)’라고 기록하지 않았으니, 이는 나라를 계승하여 제사를 지낼 자격이 없음을 의미한다. 제나라 양공(襄公)이 이미 죽은 후에는 그 아들 규(糾)를 ‘자(子)’로 기록하였으므로 이는 긍정적인 의미이며, 노나라 환공이 살아 있을 때에도 그 아들을 ‘자(子)’로 기록하였으니 이는 비판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미(美)’와 ‘악(惡)’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손헌(顛軒)이 신중히 고찰하기를, 『춘추』의 법칙에 따르면 왕을 시해한 자의 아들은 세울 수 없으며, 공의 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세(世)’를 빼는 것은 환공을 낮추려는 것이었으며, 이는 아마도 미문(微文)이다.”⁴⁶⁾

소초의 견해에 따르면, 환공(桓公)은 본래 태자(太子)의 예(禮)로써 아들 동(同)을 세웠기에 사서(史書)에서는 그를 “세자(世子)”라 칭해야 했다. 그러나 공자(孔子)가 『춘추(春秋)』를 편수할 때 “세(世)”자를 삭

45) 『春秋公羊傳』「桓公」6년: [經]九月丁卯, 子同生. [傳]久無正也. 子公羊子曰: 其諸以病桓與.
46)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敘」: 蕭楚曰: 「桓公以太子之禮舉之, 史必書『世子』. 孔子修『春秋』, 去其『世』字耳. 桓公弑兄竊國, 王法所誅絕, 故於同生不書『世』, 言不得繼世享國也. 齊襄既卒, 而糾書『子』焉, 則知其與也; 魯桓存而同書『子』焉, 則知其譏也. 故曰: 美惡不嫌, 同辭.」 顛軒謹案, 『春秋』之法, 誅君之子不立, 內無絕於公之道. 然奪其『世』, 所以起賤桓, 蓋微文也.

제한 것은 환공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환공은 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함으로써 왕법(王法)의 기본 윤리를 위반하였기에, 그의 아들을 “세자”라고 칭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아들이 노(魯)나라의 정통(正統)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음을 상징한다. 이러한 미묘한 문자 삭제 방식은 환공의 행위에 대한 은밀한 비판을 표현하며, 이는 ‘미문(微文)’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즉, 공자는 세자의 칭호를 삭제함으로써 환공을 비하하는 의도를 세밀한 문장 처리로 드러낸 것이다.

공광삼은 이러한 문자 삭제 방식이 『춘추』가 불의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경문(經文)은 호칭의 변화를 통해 “왕법”을 따르지 않는 인물을 비판하며, 『춘추』가 역사적 인물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미묘하게 다루었는지를 드러낸다. 이는 단순히 환공 개인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사회 질서와 도덕 규범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 방식은 “아름다움과 나쁨을 가리지 않고, 같은 표현을 쓴다[美惡不嫌, 同辭].”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환공의 아들 동(同)과 다른 군주의 아들들을 모두 “자(子)”로 칭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춘추』는 단어와 문장을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가치 판단을 표현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장공(莊公)」원년에서는 “3월에 夫人이 제(齊)나라로 도망갔다.” 이에 대해 전에서는 “비판이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⁴⁷⁾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하휴(何休)는 부인이 어머니 집을 지나치게 그리워한 나머지 아버지 집에 대한 존중을 잊었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행동은 “근본을 저버림[背本]”의 도리를 어지럽힌 것으로, 왕법(王法)이

47) 『春秋公羊傳』「莊公」원년: [經]三月, 夫人孫于齊. [傳]念母者, 所善也, 則曷為於其念母焉? 貶, 不與念母也.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근본을 저버림”은 사회적 윤리로서 아버지 집을 존중하고 가문 본위(本位)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예법에 맞지 않는 행위이다. 따라서 하휴는 이 행동이 “왕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見王法所當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왕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행동이므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춘추공양경전해고(春秋公羊經傳解詁)』에서 말하길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버지를 잊는 것이니, 이는 근본을 배반하는 도리이다. 따라서 문강(文姜)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불효라 여기지 않으며, 괴외(蒯賁)를 배척하는 것은 불순이라 여기지 않으며, 영사(靈社)를 협박하는 것도 불경이라 여기지 않는다. 이는 모두 근본을 중시하고 정통을 존중하여, 높은 위치의 행위가 낮은 위치에까지 실행되고,윗사람의 행동이 아랫사람에게도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폄하는 자는 왕법에 의해 옹당 처벌받아야 할 자를 말한다. 이에 이르러 폄하되는 자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또한 손(孫)의 행동을 통해 내적인 의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는데, 이는 단지 추방하여 멀리하도록 해야 할 뿐,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처벌은 윗사람에게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의리이다.”⁴⁸⁾

공광삼은 하휴(何休)의 해석을 『공양춘추경전통의』에 인용하고, 그 안에 담긴 예법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이 “근본을 중시하고 정통을 존중하여, 높은 위치의 행위가 낮은 위치에까지 실행되고, 윗사람의 행동이 아랫사람에게도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重本

48)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 『解詁』曰: 念母則忘父, 背本之道也。故絕文姜不為不孝, 距蒯賁不為不順, 脅靈社不為不敬, 蓋重本尊統, 使尊行於卑, 上行於下; 貶者, 見王法所當誅。至此乃貶者, 並不與念母也。又欲以孫為內見義, 明但當推逐去之, 亦不可加誅, 誅不加上之義。

尊統, 使尊行于卑, 上行於下.]”라는 윤리 구조가 왕법(王法)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즉, 이는 가문의 본위를 유지하고, 상하 존비의 예법 질서를 보호하는 원칙으로, 가문의 구조에서 아버지 집을 중심으로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에서는 어머니 집이나 다른 감정적인 요소로 인해 가문의 존위에 대한 준수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사회의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기초로 여겨진다. 하휴는 『해고(解詁)』에서 “부인(夫人)이 제(齊)나라로 도망갔대夫人孫于齊.”라는 표현에서 “손(孫)”을 해석하며, 이를 비난의 의미로 보았다. 하지만 공광삼은 “손”이 단순히 비난의 의미뿐만 아니라 “추방하여 보내는 것(推逐去之)”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법적인 처벌이나 징계의 수단이 아니라, 질서에 따라 부인을 어머니 나라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예법에 따른 조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광삼은 “손(孫)”의 의미는 윤리적 갈등을 예법과 가문의 질서를 기반으로 적절히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지 않고 사회 도덕을 예법을 통해 시행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은 『춘추』가 담고 있는 왕법의 논리를 반영하며, 예법을 통해 가문의 존비 질서를 유지하고, 과도한 형벌을 피하면서 사회 도덕을 확립하는 왕도의 실현을 보여주는 것이다.

『춘추』 경전의 글을 지움과 취지를 왕법과 질서를 통해 해석하는 방식은 마찬가지로 「회공 2년」의 경문 “봄, 왕, 정월에, 초구에 성을 쌓았다.”에서도 볼 수 있다. 전문에서는 “제후의 의(義)는 함부로 봉할 수 없다.”를 논하고 있다. “힘이 미쳐 구할 수 있다면 구함이 가능하다.”⁴⁹⁾

49) 『春秋公羊傳』「僖公」2년: [經]二年春, 王正月, 城楚丘. [傳]諸侯之義, 不得專封. 諸侯之義不得專封, 則其曰實與之何? 上無天子, 下無方伯, 天下諸侯有相滅亡者, 力能救之, 則救之可也.

라는 구절에 대해 공광삼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춘추(春秋)』에 ‘남의 임금을 잡았다.’, ‘남의 나라를 멸망시켰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 행위에 왕도(王道)가 없음을 드러내고, 이를 죄로 삼기 위해서이다. 은혜로운 일이 제후에 의해 함부로 행해진 경우, 비록 그것이 주(周) 왕조를 기울게 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모두 삭제되고 기록되지 않았다. 이는 후대의 군자가 기록된 내용을 보고 천하가 혼란해진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찾아 왕도가 유지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⁵⁰⁾

공광삼은 『춘추』에서 “남의 임금을 잡았다[執人之君].”, “남의 나라를 멸망시켰다[滅人之國].” 등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이들의 행동이 “그 행위에 왕도가 없음을 드러냈다[著其無王].”를 강조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즉, 주천자(周天子)의 권위를 따르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후들이 권한을 넘어 은혜를 베푸는 경우, 비록 그것이 바로 주나라의 근본을 흔들지는 않지만 여전히 예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춘추』는 종종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음[削而不書]”의 방식을 취하여, 그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간접적으로 부정하고자 한다. 기록된 내용과 생략된 내용의 대조를 통해 제후들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천자의 통치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공광삼은 또한 “기(譏)”, “폄(貶)”, “절(絕)”의 필법이 왕법에 기인한 것이며, 『춘추』가 정치적 사건과 예법적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비판할 때 왕법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50)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 『春秋』書「執人之君」, 「滅人之國」者, 著其無王, 罪之也. 至恩惠之事, 諸侯擅之, 雖未足以傾周, 皆削而不書, 冀後之君子觀其所書, 而知天下之所以亂; 索其所不書, 而知王之所以存.

공광삼은 『공양춘추경전통의』 「서」에서 “기(讖)”, “핍(貶)”, “절(絕)”을 통해 나타나는 “왕법(王法)”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춘추』 경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강조한다.

“비(讖)’, ‘핍(貶)’, ‘절(絕)’은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항상 인정(人情)에서 쉽게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법을 나타낸다. … 공자결(公子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전념하여 핍하를 면하였으니, 비록 명칭 외에 더한 것이 없으나, 그것 자체로 이미 영예롭다. 정양공(鄭襄公)은 중원을 배반하고 초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정나라가 허(許)나라를 토벌했다.’라고 하였고, 이는 ‘오나라가 담(鄆)나라를 토벌했다.’나 ‘적이 진나라를 토벌했다.’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상복을 입고 군사를 일으킬 때에는 이를 정식으로 기록하여 ‘정나라 백이 허나라를 토벌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별도의 핍하나 절망을 가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 전(傳)에서는 말하기를: “『춘추』에서는 핍척(貶斥) 없이 죄악이 드러나는 자는 핍척을 하지 않고도 죄악을 드러내고자 함이며, 핍척 후에야 죄악이 드러나는 자는 핍척을 통해 죄악을 드러내고자 함이다.” 또 말하기를: “『춘추』에서 드러난 자는 다시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모두 이 경[『춘추』]을 읽는 데 중요한 법칙이다.”⁵¹⁾

그는 『춘추』에서 “기(讖)”, “핍(貶)”, “절(絕)”이 무작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혼동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행동에 대해 특히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정양공(鄭襄公)이 초(楚)나라에 의지하고 화하(華夏)를 배반한 행위는 “정나라가 허(許)나라를 토

51)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 「序」: 讖, 貶, 絕, 不概施, 每就人情所易惑者, 而顯示之法. … 公子結專其所可專, 得免於貶, 雖於名氏之外, 未有加焉, 固已榮矣. 鄭襄公背華附楚, 賤之曰: 鄭伐許, 與吳伐郟, 狄伐晉無以異, 至其子襄經興戎, 則正言之曰: 鄭伯伐許. 以為不待貶絕爾. … 傳曰: 『春秋』不待貶絕而罪惡見者, 不貶絕以見罪惡也. 貶絕然後罪惡見者, 貶絕以見罪惡也. 又曰: 『春秋』見者不復見. 皆讀此經之要法也.

벌했다[鄭伐許].”로 경시되어 기록되었고, “오나라가 담(鄆)나라를 토벌했다[吳伐鄆].”, “적이 진나라를 토벌했다[狄伐晉].”과 같은 이민족의 침략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상복을 입고 출정할 때는 “정나라 백이 허나라를 토벌했다[鄭伯伐許].”를 기록함으로써 명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더 이상 폄(貶), 절(絕)을 덧붙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공양전(公羊傳)』의 해석에 따르면 “『춘추』에서는 폄척(貶斥) 없이 죄악이 드러나는 자는 폄척을 하지 않고도 죄악을 드러내고자 함이며, 폄척 후에야 죄악이 드러나는 자는 폄척을 통해 죄악을 드러내고자 함이다[春秋]不待貶絕而罪惡見者, 不貶絕以見罪惡也. 貶絕然然罪惡見者, 貶絕以見罪惡也.”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광삼은 이를 통해 『춘추』의 문체가 어떻게 왕법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규칙이 『춘추』 문장을 지는 핵심임을 강조한다. 즉, 기록과 생략의 미묘(微妙)한 차이를 통해 왕법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광삼은 「장공 28년」의 경문 “장손신(臧孫辰)⁵²⁾이 제(齊)나라로 가서 양곡(糧穀)의 판매를 요청했다.”에 대해, 전문 “일 년 동안 농사가 잘되지 않아 곡식을 구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⁵³⁾라는 구절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이는 『춘추』의 문자가 단순히 풍자와 비판을 나타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후대의 군주들이 외부 곡물 부족에 대한 비난에 직면할 때, 흉년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⁵⁴⁾

52) 臧孫辰, 노나라 대부 장문중(臧文仲)이다.

53) 『春秋公羊傳』「莊公」28년: [經]臧孫辰告糴于齊.[傳]一年不熟, 告糴, 譏也.

54)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 蓋以為『春秋』之文, 非徒見刺譏而已, 將使後之王者, 關於告糴之譏, 知未荒而備之.

공광삼은 이와 같은 기록이 단순히 곡물 거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군주들이 식량이 부족한 해가 오기 전에 미리 비축할 수 있는 선견지명을 갖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공광삼은 『춘추』가 단순히 역사적인 자료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譏), 폼(貶), 절(絕)”을 통해 후에 등장할 군주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군주가 가져야 할 도덕적 규범과 행동 기준을 이해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광삼은 『춘추』가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예법(禮法)의 고전으로서 그 근본 목적은 도덕 교육에 있으며, “기(譏), 폼(貶), 절(絕)”은 군주가 “왕법”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유도하여, 이상적인 통치와 자아 제약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IV. 인정(人情)과 「존(尊)·친(親)·현(賢)」

공광삼의 “인정(人情)” 개념은 단순히 보편적인 인간 감정이나 정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법의 구속 아래 인간성에 기반한 윤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첫째, 그의 “인정”은 “인성(人性)”의 본질을 드러내며 선진(先秦) 시대의 “인정” 핵심 의미와 부합한다. 둘째, “인정”은 “존존(尊尊)”, “친친(親親)”, “현현(賢賢)”의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존경, 친밀함, 그리고 현자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내용들은 자발적인 인간성에서 기인한 것만은 아니며, 종법제(宗法製)와 예법의 구속 아래에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이다. 따라서 공광삼의 “인정”은 예법이 인간관계에 실질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예(禮)를 실천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인정”을 예가 인간관계에서 구체화된 표현으로 보았으며, 주자(朱子)의 “심(心)”, “성(性)”, “정(情)”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존존”을 단순한 “존군(尊君)”으로 오해하는 것을 경계하고, 존비(尊卑)·친소(親疏) 관계의 균형을 주장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그는 인간 감정 속에서 예법의 실천을 강조하고, 윤리와 질서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다.

사실 “인정”으로 『춘추』의 필법을 해석한 것은 공광삼이 처음은 결코 아니다. 동중서(董仲舒)는 『춘추번로(春秋繁露)』, 「초장왕(楚莊王)」에서 이미 “인정”이 『춘추』 경문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적 있다.

“『춘추』는 노나라의 열두 세대를 세 가지 역사 시기로 나누었다. 친히 본 것[有親見], 들은 것[有聽說], 전해 들은 것[有聽傳說]이 그것이다. 친히 본 것은 세 세대, 들은 것은 네 세대, 전해 들은 것은 다섯 세대이다. 그러므로 애공, 정공, 소공은 군자가 친히 본 것이고, 양공, 성공, 문공, 선공은 군자가 들은 것이며, 희공, 민공, 장공, 환공, 은공은 군자가 전해 들은 것이다. 군자가 친히 본 것은 61년, 들은 것은 85년, 전해 들은 것은 96년이 있다. 친히 본 사회의 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은미한 필법을 사용하였고, 들은 시대의 일에 대해서는 재해에 대해 특별히 비통하게 서술하였으며, 전해 들은 시대에 대해서는 은혜와 정이 희박해진 것을 실제 상황에 맞추어 서술했다. … 군자는 서로 다른 시대에 대해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록한 문장에도 이에 따라 자세함과 간략함의 차이가 있다. 나는 『춘추』가 가까운 일에 대해 친밀하고, 먼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며, 친족에 대해서는 친근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원한 태도를 취함을 근거로 하여, 그가 존귀한 자를 존중하고, 비천한 자를 천시하며, 중요한 일은 중시하고, 사소한 일은 가볍게 대함을 알 수 있다.”⁵⁵⁾

55) 董仲舒, 『春秋繁露』「楚莊王」: 春秋分十二世, 以為三等. 有見, 有聞, 有傳聞. 有見三世, 有聞四世, 有傳聞五世. 故哀, 定, 昭, 君子之所見也; 襄, 成, 文, 宣, 君子之所聞也; 僖, 閔,

동중서는 『춘추공양전』에서 언급된 “소전문세(所傳聞世)” · “소문세(所聞世)” · “소견세(所見世)”의 3단계 시기에 대해 주로 다루며, 이 세 가지 世에서의 서술 방식 차이를 분석했다. 반면, 공광삼은 “인정”을 그의 “삼과구지”의 틀 안에 포함시켜, 특히 “존귀한 자를 위해서는 숨겨 주는 것이다(為尊者諱)” · “친한 자를 위해서는 숨겨 주는 것이다(為親者諱).” · “어진 자를 위해서는 숨겨 주는 것이다(為賢者諱).” 이 세 가지 신분에 주목했다. 두 사람 모두 “인정”이 『춘추』의 필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으나, 동중서는 감정과 서술 방식의 미세한 변화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특히 다른 시간대에 따른 기록 방법에서 차이를 두었다. 반면, 공광삼은 신분의 도덕적 고려와 그것이 은유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서로 다른 초점은 그들이 『춘추』를 해석할 때 각기 독특한 시각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공광삼은 “휘(諱)”의 목적이 단순히 과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분을 기반으로 삼아 도덕적 비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은휘(隱諱)와 견책(譴責)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 『춘추공양전』, 「민공(閔公)」 원년의 경문 “겨울에 제나라의 중손(仲孫)이 왔다.”에 대해 전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춘추』는 존귀한 자를 위해서는 숨겨 주고, 친한 자를 위해서는 숨겨 주고, 어진 자를 위해서는 숨겨 주는 것이다.”⁵⁶⁾ 여기에서 “휘(諱)”는 “미언(微言)” 중의 하나로서 완곡한 표현 방식이며, “존존”, “친친”, “현현”에 기반하여 발휘된다. 『공양전』은 세 가지 ‘휘’ 필법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존귀한 자(尊者), 친한 자(親者), 어

莊, 桓, 隱, 君子之所傳聞也。所見六十一年, 所聞八十五年, 所傳聞九十六年。於所見, 微其辭; 於所聞, 痛其禍; 於傳聞, 殺其恩與情俱也。… 屈伸之誌, 詳略之文, 皆應之。吾以其近近而遠遠, 親親而疏疏也, 亦知其貴貴而賤賤, 重重而輕輕也。

56) 『春秋公羊傳』 「閔公」 원년: [經]冬, 齊仲孫來.[傳]春秋為尊者諱, 為親者諱, 為賢者諱.

진 재賢者”라는 것이다. 공광삼의 『공양춘추경전통의』에서는 『춘추공양전』, 「민공(閔公)」 원년의 전문 “『춘추』에서는 존귀한 자를 위해서는 숨겨 주고, 친한 자를 위해서는 숨겨 주고, 어진 자를 위해서는 숨겨 주는 것이다.”⁵⁷⁾라는 구절 아래에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존귀한 자를 위해 숨겨 주는 것은 그 굴욕(屈辱)된 점을 피하는 것이니, ‘국내의 경우 패했다고 말하지 않는다.’이나 ‘대부랑 회맹(會盟)할 때 공(公)으로 칭하지 않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친한 자를 위해 숨겨 주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점을 피하는 것이니, ‘시해당하였으나 흥(薨)이라 말함’이나 ‘도망하였으나 손(孫)이라 말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명한 자를 위해 숨겨 주는 것은 그 잘못된 점을 피하는 것이다. ‘휘(諱)와 ‘기(譏)’의 쓰임은 하나다. 그 일이 ‘기’의 범주에 속하고, 그 사람이 ‘존귀, 친근, 현명’한 자의 범주에 속할 때 비로소 이를 따라 숨겨 주게 되니, 이 세 가지의 원칙은 일관된 것이다. … 『춘추』에서의 ‘휘’는 반드시 글이 사실을 감추지 않게 해야 한다.”⁵⁸⁾

“존귀한 자를 위해서는 숨겨 주는 것이다.”라 존비(尊卑) 신분에 기초하여, 존귀한 자의 굴욕이나 불리한 점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고, “친한 자를 위해서는 숨겨 주는 것이다.”라 혈육 간의 정을 고려하여, 친족 간의 고통이나 비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며, “어진 자를 위해서는 숨겨 주는 것이다.”라 도덕적 전범의 유지를 위해 현자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다. 이 “휘”의 대상은 모두 인륜(人倫)과 삼강

57) 『春秋公羊傳』「閔公」 원년: [傳]『春秋』為尊者諱, 為親者諱, 為賢者諱.

58)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 為尊者諱, 諱所屈也; 「內不言敗」, 「盟大夫不稱公」之類是也. 為親者諱, 諱所痛也; 「弑而曰薨」, 「奔而曰孫」之類是也. 為賢者諱, 諱所過也. 「諱」與「譏」之為用, 一也. 其事在「譏」之限, 其人在「尊親賢」者之科, 然後從而諱之, 三者道通例耳. … 『春秋』之「諱」, 必使文不沒實.

오륜(三綱五倫)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다. 공광삼은 “휘”와 “기(譏)”가 동일한 의도를 가진다고 보았다. 즉, 둘 다 예법(禮法)과 도덕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다는 것이다. 『춘추』에서 “휘”는 고의로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 질서와 인간관계 규범을 지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의 표현은 진실을 잃지 않으면서도 “존(尊)”, “친(親)”, “현(賢)”의 미덕을 유지할 수 있다. 공광삼은 “인정”을 공양학의 제 3과(第三科)라고 간주하여 『춘추』가 예법을 실현하려면 인정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광삼(孔廣森)은 『공양춘추경전통의』 「서」에서 “존·친·현”을 기록할 때 취하는 은휘(隱諱) 필법을 특별히 강조한다.

“유우씨(有虞氏)는 덕(德)을 귀하게 여겼고, 하후씨(夏后氏)는 작위(爵位)를 귀하게 여겼으며, 은주(殷周)는 친정(親情)을 귀하게 여겼다고 전해진다. 『춘추』는 사대(四代)의 합당한 모범을 감찰하고, 백왕(百王)의 통궤(通軌)를 세워, 군주를 존중하고 부모를 친애하며, 현자를 존귀하게 했다. 존귀한 자가 과실이 있을 때에는 ‘감히 비난하지 않으며’; 친한 자가 과실이 있을 때에는 ‘비난할 수 없으며’; 현자가 과실이 있을 때에는 ‘차마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그 글을 바꾸어 이를 위해 숨겨 주게 하니, 휘(諱)도 또한 기(譏)의 일종이다.”⁵⁹⁾

공광삼은 고대의 우(虞)·하(夏)·은(殷)·주(周) 시대가 각각 덕행, 작위, 혈족 간의 정을 중시했음을 언급하며, 『춘추』가 이러한 가치관을 참고하여 “존존(尊尊)·친친(親親)·현기현(賢其賢)”을 핵심으로

59)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 「序」: 聞之有虞氏貴德, 夏后氏貴爵, 殷周貴親, 『春秋』監四代之合模, 建百王之通軌, 尊尊親親而賢其賢. 尊者有過, 是「不敢譏」; 親者有過, 是「不可譏」; 賢者有過, 是「不忍譏」, 爰變其文而為之諱, 諱猶譏也.

하는 도덕적 기준을 확립했다고 보았다. 그는 각기 다른 신분의 인물들에 대한 과실 처리 방식을 요약하며, 존귀한 인물의 경우 과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을 “감히 비난하지 않는다[不敢譏].”고 하였고, 혈연적으로 가까운 인물의 과실은 “쉽게 비난할 수 없다[不可譏].”고 간주했다. 덕망 있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의 과실을 “차마 비난하지 못한다[不忍譏].”고 하여, 도덕적 전범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공광삼은 이러한 은휘 방식이 단순히 과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신분과 도덕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했다. 그는 “유(諭)는 기(譏)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은휘(隱諱)가 여전히 비판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즉, 은휘와 비판은 완전히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은휘는 더 적합하고 온화한 방식으로 비판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공광삼은 “인정”의 관점에서 『춘추』의 은휘를 해석하면서, 이를 통해 도덕과 사회 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공광삼은 「은공」 원년의 “여름 5월에 정백(鄭伯)이 단(段)을 언(鄆)에서 이겼다.”⁶⁰⁾라는 사건을 분석하면서 “친친(親親)” 개념을 깊이 고찰했다. 그는 특히 “극(克)” 자의 사용에 주목하며, 이 구절에서 “극”이 일반적인 훈고학적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았다. 공광삼은 『이아(爾雅)』의 정의를 인용하여 “승(勝), 견(肩), 감(戡), 류(劉), 살(殺)은 모두 극(克)이다.”⁶¹⁾라고 지적하면서, 『춘추』가 ‘극(克)’자를 통해 정백(鄭伯)의 악행을 드러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무공(鄭武公)의 부인은 막내아들 단(段)을 사랑하여 그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무공은 허락하지 않았다. 장공(莊公)이 즉위한 후 어머니의 뜻

60) 『春秋左氏傳』 「隱公」 원년: [經] 夏, 五月, 鄭伯克段于鄆.

61) 『爾雅』: 勝, 肩, 戡, 劉, 殺, 克也.

을 굴종(屈從)해서 ‘단’에게 경언(京鄢)의 땅을 주었고, 그곳에는 도읍과 백성들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단의 반역 계획을 성취하게 했다. 그 후에 ‘단’을 토벌하였으므로, 전(傳)은 경(經)의 뜻을 서술하여 말하기를, 장공이 정말로 동생을 사랑했다면 언(鄢) 땅을 주지 말아야 했고, 그리하여 의지할 곳이 없게 했다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월(月)을 기록하면서 ‘극(克)’이라고 한 것은 정백(鄭伯)이 동생을 죄에 빠뜨리는 것을 참아 마음에 두고, 그 어머니의 뜻을 거스른 것을 책망한 것이다.”⁶²⁾

공광삼은 『춘추좌씨전』의 역사적 배경을 참고하여, 정나라 무공(鄭武公)의 부인이 막내아들 단(段)을 후계자로 세우려 했으나, 정무공이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한다. 이후 장공(莊公)이 즉위하자,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 위해 경언(京鄢)의 땅과 병력을 단에게 주어 그의 역모를 조장했다. 공광삼은 이에 근거하여 『춘추』가 장공에게 동생 단에 대한 과도한 충애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을 밝힌다. 기록된 “극(克)” 자는 정백(鄭伯)에 대한 비판을 반영하며, 그가 동생을 해치는 과정에서 가족애를 어겼음을 암시하고 있다. 공광삼은 하휴(何休)의 해석을 빌려 “친친”이라는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하휴의 해석인 “적을 토벌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기록한 것은 군주가 친족에 대한 의를 지키지 못한 잘못 때문이므로 이를 기록한 것이 다[不從討賊辭者，主惡以失親親，故書之].”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경문의 “극” 자를 통해 정백이 혈족 간의 정에 무관심하고 도덕적 책임을 저버렸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석은 『춘추』의 서술 특

62)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 鄭武公夫人愛其少子段，欲立之，武公弗許。及莊公即位，曲從母意，與以京鄢之地，有都邑，徒衆，濟成其逆謀，然後從而討之，故傳述經意，言莊公誠愛弟者，不如勿與之鄢，使無所資，則不生亂。錄月言‘克’者，責鄭伯忍陷弟于罪，以戾其母也。

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고대 윤리에서 혈족 간의 정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공」32년 “가을, 7월, 계사(癸巳)일에 공자 아가 졸했다.”⁶³⁾라는 구절을 해석할 때, 공광삼은 “친친(親親)의 도”를 분석하기도 한다.

“계자(季子)는 대의를 위해 친족을 멸하는 것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릇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춘추』는 이미 그를 선하게 여겼고, 또한 깊이 그 은폐된 글을 따랐으며, 계자가 그 실행을 늦추고, 부득이하여 살해에 이르렀음을 밝힌다. 이후에 만약 윤(倫)이나 경(罔)과 같은 무리들이 단지 친족을 없애어 자신을 이롭게 하려 한다면, 그들은 계자를 구실로 삼을 수 없다. 그 죄악을 억제하는 뜻은 『시경(詩經)』, 「파부(破斧)」의 뜻과 같으며, 그 형제를 친애하는 마음은 『시경(詩經)』, 「상제(常棣)」의 뜻과 같다. 족아(族牙)는 그 죄를 폭로하지 않고, 경부(慶父)에 대해서도 그 내심을 깊이 탐구하지 않았으니, 형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자와 같았다. 그러므로 비록 형을 죽였어도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혼란일 뿐이다. ‘정백이 언 땅에서 단을 이겼다.’라고 한 것은 그가 동생을 죽이는 데에 있어 잔인함이 드러난 것이고, ‘공자 아가 죽었다.’ 혹은 ‘공자 경부가 제나라로 갔다.’라고 한 것은 계자가 형을 죽이기를 참지 못함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춘추』의 입언(立言)은 바로 동자(董仲舒)가 말한 바와 같이 ‘성인은 미세한 데에 마음을 두고, 이를 드러나게 한다.’⁶⁴⁾라는 것이다.”⁶⁵⁾

63) 『春秋左氏傳』「莊公」32년: [經]秋, 七月, 癸巳, 公子牙卒.

64) 董仲舒, 『春秋繁露』「二端」: 故聖人能繫心於微, 而致之著也.

65)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 季子大義滅親, 變之正也. 『春秋』既善之矣, 而又深順其諱文, 明乎季子隱之緩之, 不得已而後出於殺者. 後若倫, 罔之徒, 苟翦骨肉以自利者, 乃不得假季子爲口實也. 其過惡也, 『破斧』之誌乎? 其親親也, 『常棣』之誌乎? 族牙不暴其罪, 於慶父不探其情, 有愛兄之心如季子焉, 雖殺兄可也. 不然, 是亂而已矣. 曰『鄭伯克段於鄆』, 則其忍於殺弟見. 曰『公子牙卒』, 曰『公子慶父如齊』, 則季子不忍殺其兄見. 故『春秋』之立言也, 董子所謂『聖人能繫心於微, 而致之著』者也.

공광삼은 계자가 비록 대의멸친(大義滅親)으로 형 정부(慶父)를 죽였지만, 차마 형에게 호되게 손찌검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생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정백(鄭伯)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르다. 공광삼은 『춘추』가 “공자 아(牙)가 졸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졸’자로 폭력의 요소를 숨긴 것은 계자가 가족과 혈족 간의 정을 중시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라고 보았다. 계자가 형제를 “은지완지(隱之緩之).” 대하다가 어쩔 수 없을 때 비로소 벌을 내렸음을 나타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춘추』는 이러한 “올바르게 변통함(變之正)”을 인정하며, 후대에 계자의 일을 빌미로 친족을 단절하려는 구실로 삼지 않도록 했다. 공광삼은 계자의 행동에 악행을 억제하려는 “『시경(詩經)』, 「破斧」의 뜻”과 친정을 지키려는 “『시경(詩經)』, 「常棣」의 뜻”이 담겨 있음을 밝히며, 내면의 갈등과 형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보았다. 그는 계자의 “친친”과 정백이 동생을 죽인 행동을 비교하며, 두 사람의 차이가 동기에 있다고 보았다. 계자는 주저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죽였으나, 정백은 망설임 없이 행동했다. 장공의 행동은 공광삼이 추구하는 친친(親親)의 도에 부합하며, 이는 먼저 인애(仁愛)를 베풀고 의(義)를 지키며 가족애를 중시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혈육의 정으로 인해 존비(尊卑)와 정의(正義)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광삼은 친정의 도는 군주에게만 적용된다는 하휴의 견해와 달리, 혈족 간의 정(情)의 도(道)가 군주뿐 아니라 신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광삼의 해석에서 “현현(賢賢)”은 덕행이 높은 자를 존중하고, 스스로 은퇴하고 현자에게 양보하며, 현명한 이를 소중히 여기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춘추』는 특정 표현을 사용하여 이러한 현행(賢行)을 칭송하고 후대 사람을 교화하고자 한다. 공광삼은 「은공」 원년 “3월에 은공이 주의부(邾儀父)와 멸(蔑) 땅에서 맹약을 맺었다.”⁶⁶⁾를 통해 은공

이 더 현명한 자에게 자리를 양보한 덕을 인정하며 『춘추』가 이를 칭송한다고 보았다.

“『춘추』는 노(魯)나라를 내국(內國)으로 삼았고, 인접한 자들과의 관계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은공(隱公)은 현명함으로 인해 겸손하게 자리를 양보하였으며, 주루(邾婁)나라의 군주는 현자를 가까이하고 의를 사모하며, 신의를 강구하고 화목을 도모할 수 있었으므로, 법에 따라 마땅히 포장(報獎)해야 한다.”⁶⁷⁾

주루나라의 군주는 의로움을 흠모하고 현자를 가까이하며 노나라와 동맹을 맺었는데, 『춘추』는 이를 “신의를 세우고 화목을 도모한다.”라고 칭송한다. 여기서의 “현현(賢賢)”은 덕행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주가 더 적합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덕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부(慶父)에게는 세울 만한 도(道)가 없었으므로, 노(魯)나라의 계자(季子)는 그를 의(義)로써 대했다. 합로(闔廬)에게는 세울 만한 도(道)가 있었으므로, 오(吳)나라의 계자(季子)는 그를 인(仁)으로써 대했다.”⁶⁸⁾

「양공(襄公)」29년에 “오(吳)나라 임금이 계찰(季札)을 노(魯)나라에 보내와서 빙문했다.”⁶⁹⁾라는 사건에서 공광삼은 계찰의 양위 행위를 칭송하며, 이를 “현현(賢賢)”의 도를 완벽히 구현한 예로 평가한다. 공

66) 『春秋左氏傳』「隱公」원년: [經]三月, 公及邾儀父盟於蔑.

67)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 『春秋』內魯, 與內接者托始於此. 隱公以賢讓居位, 邾婁之君能親賢慕義, 講信脩睦, 於法當褒也.

68)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 慶父無可立道, 魯季子處之以義; 闔廬有可立道, 吳季子處之以仁.

69) 『春秋左氏傳』「襄公」29년: [經]吳子使札來聘.

광삼은 계찰(季札)와 노(魯)나라 계우(季友)가 모두 왕위를 양보하였지만, 계찰(季札)이 합로를 대하는 태도는 “인(仁)”을 나타낸 반면, 계우가 경부를 대하는 태도는 “의(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서로 다른 대상을 상대로 한 도덕적 판단의 차이로 공광삼은 특히 계찰의 현덕을 더욱 높이 평가했다. 그는 계찰이 인덕(仁德)에 대한 존경으로 인해 왕위를 양보했다고 보며, 이를 대의라고 여겼다.

V. 결론

공광삼은 『공양춘추경전통의』에서 “삼과구지”에 대해 독창적이고 정교한 재해석을 제시하였는데, 그의 해석은 전통 공양학의 이론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유교 경전의 의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다. 공광삼은 “천도”, “왕법”, “인정”을 분석하여 “삼과구지”라는 『춘추』 대의의 핵심 내용을 새롭게 정리했다.

“천도” 부분에서 공광삼은 “시, 월, 일”의 기록을 천도의 질서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는 사건의 시간을 기록하는 형식이자 예법의 의지와 가치를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천도의 불가침성을 강조하고, 천도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규제와 영향을 전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해석은 역대 학자들이 “시, 월, 일”에 대해 해석한 틀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춘추』가 유교 경전으로서 예법을 계승하고 시간 순서를 규범화하는 데 있어 의리적 기능을 강화했다.

“왕법” 부분에서 공광삼은 “기, 펴, 절”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왕법의

핵심이 제도의 공정성과 징계 기능을 드러내는 것에 있음을 밝혔다. 공광삼의 해석은 왕법과 도덕의 일치를 강조하며, 『춘추』의 기록 방식을 통해 행실이 좋지 않거나 예법을 어긴 사람들을 “기, 펴, 절”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단지 덕행에 대한 권고일 뿐만 아니라 통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당대에 경고하고 후세를 교훈함으로써 정의와 도덕이 넘치는 정치 질서를 형성하고자 한다.

“인정” 차원에서 공광삼은 『춘추』의 텍스트에서 “존, 친, 현” 세 가지 기준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춘추』가 가족애, 존비, 현덕을 중시하고 보호하는 방식을 명확히 했다. 그는 “친친(親親)”과 “존존(尊尊)”의 윤리적 기준을 강조하며, 어떠한 평가와 기록도 “친친”의 도에 맞아야 하며, 윤리를 저울질할 때 “친친”과 “존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애(仁愛)를 우선시하는 관념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가족애와 왕법의 균형을 강조하여 친친으로 인해 질서를 해치거나 존존의 의리를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현(賢賢)”에 대한 해석에서, 『춘추』가 현자를 칭송함으로써 후세를 권면하고 도덕과 충성을 유지하는 감정을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공광삼은 『공양춘추경전통의』에서 “삼과구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천도, 왕법, 인정”의 미묘한 관계를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세부에서 유교 정치와 윤리 사상을 깊이 있게 설명했다. 공광삼의 독창적인 통찰은 『춘추』의 의리적 내실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삼과구지”에 새로운 해석적 차원을 부여한 것이다. 그의 분석 방식은 이전 공양학을 계승하면서도 유교 경전에 대한 혁신적 이해로 이어졌고, 후대의 『춘추』 연구에도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尔雅』

『儀鄭堂記』

『春秋左氏傳註疏』

『春秋公羊傳註疏』

『春秋穀梁傳注疏』

孔廣森, 『公羊春秋經傳通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董仲舒, 『春秋繁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柯劭忞, 『春秋穀梁傳註』, 廣西: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8.

江 藩, 『漢學師承記』, 北京: 中華書局, 1985.

徐世昌, 『清儒學案』, 上海: 世界書局, 1979.

許 慎,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63.

郭曉東, 「孔廣森與“公羊”之三科九旨」, 上海: 『復旦政治哲學評論』 제8집, 2016.

【국문초록】

이 논문은 청나라의 경학자 공광삼(孔廣森, 1752~1786)이 『공양춘추경전통의(公羊春秋經傳通義)』에서 “삼과구지(三科九旨)”에 대해 새롭게 해석한 내용과 그 사상적 함의를 고찰한다. 공광삼은 하휴(何休, 129~182), 동중서(董仲舒, B.C.179~B.C.104) 등의 해석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하여 “삼과(三科)”를 “천도(天道)”, “왕법(王法)”, “인정(人情)”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강(綱)으로 삼아 “시(時)·월(月)·일(日)”과 “기(譏)·핍(貶)·절(絕)” 및 “존(尊), 친(親), 현(賢)”이라는 아홉 가지 구체적인 지의(旨意)와 연결시켰다. 공광삼은 『춘추』 경문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삼과구지”에 새로운 해석의 차원을 부여했다. 그는 “천도(天道)”를 『춘추』가 기록한 시서(時序)의 예법적 근거로 보고, 천명과 질서의 불가침성을 드러냈다. “왕법(王法)”은 덕행을 잃은 자의 행동을 비판하고, 군신(君臣)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통치 질서의 정의(正義)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인정(人情)”은 존비(尊卑)의 윤리와 가족애를 강조하며, 예제(禮製)와 인성(人性)의 조화를 중시했다. “인정(人情)” 측면에서 공광삼은 “친친(親親)”과 “존존(尊尊)”을 중시하는데, 혈족 간의 정과 존비(尊卑)는 모두 예법에 부합해야 하고, 인(仁)과 의(義)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광삼이 『공양춘추경전통의』에서 “삼과구지”에 대해 새롭게 해석한 것은 전통 공양학을 계승한 동시에 유가 의리(義理)에 대한 그의 혁신적 발상을 나타내며, 『춘추』에 보다 풍부한 도덕적 교화와 정치 윤리적 함의를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한대 공양학의 이론적 정수를 융합했을 뿐만 아니라, 공광삼의 독특한 “경사합일(經史合一)”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주제어: 공광삼, 『공양춘추경전통의』, 춘추학, 삼과구지(三科九旨)

【 ABSTRACT 】

A New Interpretation of the “Three Categories and Nine Principles” in Kong Guangsen’s *The Comprehensive Meaning of the Gongyang Commentary o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Zhang, Xiang Liang

(SUNGKYUNKWAN UNIVERSITY · Confucian Studies, Eastern Philosophy and Korean Philosophy)

This paper examines the new interpretation of the “Three Categories and Nine Principles” and its ideological implications presented by Kong Guangsen (1752–1786), a Confucian scholar of the Qing Dynasty, in his work *The Comprehensive Meaning of the Gongyang Commentary o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Kong Guangsen followed the interpretive traditions of He Xiu (129–182) and Dong Zhongshan (179 B.C.–104 B.C.), while providing an original interpretation that divides the “Three Categories” into “Heavenly Principle,” “Royal Law,” and “Human Sentiment,” using these as frameworks to connect with nine specific principles, namely, “Time,” “Month,” “Day,” “Criticism,” “Demotion,” “Termination,” “Respect,” “Kinship,” and “Virtue.”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Kong Guangsen added a new interpretive dimension to the “Three Categories and Nine Principles.” He regarded the “Heavenly Principle” as the ritual basis for the recording of seasonal orders in the *Annals*, highlighting the inviolability of the heavenly mandate and order. “Royal Law” aimed to criticize those who lost their virtue and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ruler and ministers, thereby maintaining the justice of governance. “Human Sentiment” emphasized the ethics of respect for hierarchy and familial love, focusing on the harmony between ritual norms and human nature. In this regard, Kong placed particular emphasis on the handling of “proximity of kin” and “respect for hierarchy,”

emphasizing that both familial affection and social hierarchy must align with ritual propriety. He considered both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 and asserted that “proximity of kin” does not conflict with “respect for hierarchy.”

Kong Guangsen’s reinterpretation of the “Three Categories and Nine Principles” in *The Comprehensive Meaning of the Gongyang Commentary o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not only inherited the traditional Gongyang studies but also showcased his innovative development of Confucian moral philosophy, enriching the *Annals* with greater moral enlightenment and political ethical significance. This new interpretation integrates the theoretical essence of Han Dynasty Gongyang studies while reflecting Kong Guangsen’s unique concept of the “integration of classics and history.”

Key words: Kong Guangsen, The Comprehensive Meaning of the Gongyang Commentary o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Chunqiu Studies, Three Categories and Nine Principles

투고 접수: 2024. 11. 18.	심사 완료: 2024. 12. 02.	게재 결정: 2024. 12. 02.
----------------------	----------------------	----------------------